

의약분업		번호: III - B - 3			
제 목	국문	의약분업 전·후 3차 진료기관 외래이용 변화			
	영문	The Change in the Outpatient Visit to Tertiary care Hospital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rug Dispensing Policy			
저 자 및 소 속	국문	조동영 <sup>1)</sup> , 유승흠 <sup>2)</sup> , 손태용 <sup>3)</sup> 1) 삼성서울병원 총무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유한대학 의무행정과			
	영문	Dong Yeong Cho <sup>1)</sup> , Seung Hum Yu <sup>2)</sup> , Tae Yong Sohn <sup>3)</sup> 1) Dept. of General Affairs, Samsung Medical Center, 2) Dep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 Dept. of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Yuhan College			
분 야	보건관리 의약분업	발 표 자	조동영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의약분업은 병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의약분업이후 병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매우 불안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결국 병원은 향후 변화의 방향을 예견해야만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수립 등 주요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시행 전·후의 의료이용을 비교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내 3차 진료기관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과 이후의 외래이용 양상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의료이용과 관련된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외래이용 환자수, 진료수익의 변화와 그 변화 양상이 병원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p> <p>둘째,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변화와 그 변화 양상이 병원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p> <p>2. 연구방법</p> <p>연구대상 병원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3차 진료기관중 4개 병원을 임의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인력, 시설, 운영체계 등에서 변동이 없어 의약분업의 순효과 파악이 용이한 3차 진료기관 중에서 병상규모면에서 A군인 1,200병상이상 병원 2개, B군인 600~700병상 규모 병원 2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각 병원의 진료실적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과 전년동기간 즉 2000년 3월부터 5월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각 병원의 진료실적을 수집하였다.</p> <p>3. 연구결과</p> <p>가. 외래이용 환자수는 의약분업 시행후 5.8% 감소하였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 소아과가</p>					

21.9%, 10.6%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초진에 비해 재진환자가 6.7% 더 감소하여 초진율은 의약분업이후 1.2% 높아졌다. 외래이용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환자의 감소가 2.4%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0~14세의 소아환자와 25~44세의 경제활동연령층의 감소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6.7%, 경기도는 7.2% 감소한 반면 기타 지방은 0.3%만 감소하였으며, 의료보장 유형별로 보면 의료보호 환자는 증가하였다.

나. 질환별 환자 변화에서는 급성질환군은 감소, 만성질환군은 증가하였으며, 외래 20대 다빈도 상병을 분석해 보면 정상임신의 관리 31.8%, 일반적 의학검사 35%, 영유아발달검사 26.1%, 급성 상기도 감염 32.1% 등 경증환자와 예방적 검사 목적의 외래환자 감소가 높았다.

다. 약처방관련 양상의 변화에서는 외래환자 처방율이 2.2% 감소하였고, 외래주사제 처방율은 0.1%의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으며, 1회당 평균처방 일수는 0.6일 증가양상을 보였다. 항생제 처방율은 분업 전·후 15.9%에서 15.0%로 5.7% 감소하였고, 처방당 약제비는 고가약제비 사용 시사지표가 4개중 3개의 약효군에서 40%내외의 증가를 보여 약제비의 고가화 경향을 시사하였다.

라. 의약분업이 병원경영에 미친 영향을 외래매출액 증감으로 살펴보면 의약분업 시행후 외래매출액은 14.7% 감소하여 병원계의 경영난 악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외래 1인 1일당 수가의 감소가 11.3%로 외래매출액 감소의 주요 요인이었다.

#### 4. 결론 및 고찰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약분업이후 외래이용의 편의성이 저해되고,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중 일부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하였거나,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래수요를 줄임에 따라 3차 진료기관의 외래환자수가 5.8% 감소하였다. 외래환자수 감소와 더불어 의약품실거래가제,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한 약제비 감소분에 대한 수가보전이 미진하여 병원계의 외래매출액 감소규모가 14.7%에 달해 병원경영 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의 정책목표중 항생제사용 억제, 주사제사용 감소 등은 3차 진료기관에 한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미미한 정도로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면도 있으나 목표달성에는 미흡한 반면, 투약일수 증가, 약제비 고가화 경향 등의 부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의약분업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번 연구결과에서도 도출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근본적인 제도수정, 보완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연구가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약분업을 전·후 기간의 의료이용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